

# 人蔘養胃湯의 臨床活用に 對한 形象醫學的 考察

박 찬 기  
형상한의원장

## Abstract

### Clinical Report of Insamyangwitang in Hyungsang medicine

Park Chan-Ki

Hyungsang Oriental Medicine Clinic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A general review is made on *Insamyangwitang*(人蔘養胃湯).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rom the clinical cases of *Insamyangwitang* in Hyungsang medicine.

1. *Insamyangwitang* is composed of four different prescriptions of *Huisaentang*, *Sakoonjatang*, *Eajintang* and *Pyungwisan*.

*Huisaentang* is usually prescribed for the intestinal convulsion. *Sakoonjatang* for the deficiency of Ki. *Eajintang* for retention of phlegm.

2. *Insamyangwitang* is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spleen, drying the dampness, warning the middle-warmer to stop vomiting, regulating the flow of Ki, and eliminating phlegm.

3. *Insamyangwitang* is applicable to malaria caused by cold, intestinal convulsion,

---

교신저자 : 박찬기

제주시 삼도1동 579-5번지 형상한의원

Tel : 064) 702-1075

E-mail : mrkiss@korea.com

접수 : 2003/5/14

수정 : 2003/5/20

채택 : 2003/5/30

abdominal mass, edema, tympanites, Yin syndrome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distension, lack of appetite, stomachache, and diarrhea.

4. Persons with the following characteristic in Hyungsang are more susceptible to *Insamyangwitang* : Jung type, Hyul type, fish type, Taium meridian type, white fat damp constitution, person with big mouth, and woman rather than man.

**Key Word** : *Insamyangwitang*, Hyungsang medicine, characteristic in Hyungsang.

## I. 緒 論

人蔘養胃湯은 A. D. 1107년경에 저술된 陳<sup>1)</sup>의 太平惠民和劑局方에 최초로 수록된 處方으로 外感風寒과 內傷生冷 및 傷寒陰症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本 人蔘養胃湯의 방제 구성을 살펴보면 霍亂吐瀉를 치료하는 回生散<sup>3)</sup>과 一切의 痰飲을 치료하는 二陳湯<sup>3)</sup>과 和脾健胃와 中焦의 飲食停滯를 치료하는 平胃散<sup>3)</sup>과 榮衛氣虛와 脾胃虛弱을 다스리는 四君子湯<sup>3)</sup>에 草果 烏梅를 加한 方劑로, 구성된 약물의 전체적인 藥性이 溫無毒하고, 味는 辛苦·甘하며 歸經은 脾胃經이 대부분이며 健脾, 燥濕, 溫中止嘔, 理氣, 去痰하는 效能이 있어<sup>4)</sup>, 後代에 羅<sup>5)</sup>, 朱<sup>6)</sup>, 樓<sup>7)</sup>, 李<sup>8)</sup>, 龔<sup>9)</sup>, 王<sup>10)</sup>, 張<sup>11)</sup>, 黃<sup>12)13)</sup> 등 여러 醫家들에 의하여 활용되어 왔던 처방 중 하나이다.

이 處方의 적용증으로 陳<sup>1)</sup>은 “外感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目昏疼, 肢體拘急”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羅<sup>5)</sup>는 “中脘虛寒, 嘔逆, 惡心” 朱<sup>6)</sup>는 “挾食停痰”, 樓<sup>7)</sup>는 “山嵐瘴氣, 寒瘧” 등에 사용하고 李<sup>8)</sup>는 “飲食傷脾”, 龔<sup>9)</sup>은 “感寒發瘧”에 응용하였고 黃<sup>13)</sup>은 “痞滿, 食欲不振, 腹痛, 泄瀉”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한편 『東醫寶鑑』에서는 人蔘養胃湯이 주로 寒門·內傷門·痰瘧門에 사용되었으며 病因이 主가 內傷이고 附가 外感인 경우에

사용되는데, 즉 內외의 濕을 調節하고, 脾胃를 增進시키며, 寒熱의 交作을 유발하는 痰飲을 조절하는 역할과 經脈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寒門에서 傷寒 陰症<sup>2)</sup>이란 飲食, 居處, 陰陽, 喜怒의 不調로 인한 內傷病에 風雨寒暑의 外邪가 겹치는 病이며, 內傷門에서는 “內傷에 外感이 兼할 경우에 사용한다”<sup>2)</sup>고 하였고, 痰瘧門의 경우에도 “小柴胡湯과 비교하여 寒症이 많은 경우에 사용한다”<sup>2)</sup>고 한 것으로 보아, 內外, 寒熱을 조절하는 方으로 볼 수 있고 處方의 구성 중 平胃散은 주로 肥人의 內外 濕을 조절하고, 四君子湯은 面白한 사람으로써 脾胃氣가 부족하여 全身의 氣운행이 안 될 경우에 脾胃, 內외의 氣를 조절한다. 또한 二陳湯으로 濕으로 인한 痰飲을 조절하고, 太陰 經脈의 運行을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人蔘養胃湯이 주로 적용되는 形象은 肥白한 濕體, 精科, 血科 六經形에서는 太陰形에 해당된다.

이에 著者는 臨床에서 形象的 觀點에서 人蔘養胃湯을 여러 질환에 사용한 바, 몇 가지 유용한 관찰을 할 수 있었기에 효과가 있었으므로 이를 보고한다.

## Ⅱ. 本論 및 考察

### 1. 概要

人蔘養胃湯은 宋代의 太平惠民和劑局方<sup>1)</sup>에 처음 수록된 處方으로 그 효능은 “治傷寒陰症, 及外傷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痛身疼”<sup>2)</sup>이다.

傷寒陰症에 對하여 서술하면, 『內經』에 “病이 陽에서 생기는 것은 風雨寒暑에 傷했을 때 생기고 病이 陰에서 생기는 것은 飮食이나 居處를 잘못했거나 性生活을 지나치게 했거나 喜怒 등 七情에 傷했을 때 생긴다”<sup>2)</sup>고 하였다. 傷寒陰症은 風雨寒暑의 外氣에 傷한 傷寒 陽症에 비하여 飮食, 居處, 陰陽, 喜怒에 傷한 것으로 그 증상이 四肢가 厥冷하고 吐瀉가 있으면서 渴症이 없고 渴기를 좋아한다<sup>2)</sup>고 하였다.

形象의으로 볼 때, 陰病은 耳目口鼻에서 陽病이 코에 해당하는 것과 반대로 입에 해당하므로 人蔘養胃湯은 입이 큰 사람, 잘 먹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人蔘養胃湯의 藥物 構成은 蒼朮, 陳皮, 厚朴, 半夏, 茯苓, 藿香, 人蔘, 草果, 甘草, 生薑, 大棗, 烏梅로 이루어져있다<sup>2)</sup>.

이 중 陳皮와 藿香은 回生散<sup>3)</sup>의 구성약물로 그 主治는 “治 霍亂吐瀉過多一點, 胃氣存子服之回生”이고, 半夏, 陳皮, 茯苓, 甘草, 生薑은 二陳湯<sup>3)</sup>의 구성약물로 痰飲을 通治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蒼朮, 陳皮, 厚朴, 甘草, 生薑, 大棗는 平胃散<sup>3)</sup>을 구성하여 “和脾健胃, 胃和氣平則止, 不可常服”의 主治를 가진다. 또한 人蔘, 蒼朮, 茯苓, 甘草는 四君子<sup>3)</sup>의 變方으로 “治 榮衛氣虛, 脾衰肺損, 飮食少思, 氣短, 氣少”의 효능이 있다. 草果<sup>4)</sup>는 寒濕鬱滯로 인한 脾胃虛寒의 症을 다스리고, 특히 癩疫癰瘡를 치료하는

효능이 우수하여 本 處方이 內外의 寒濕뿐 아니라 나아가 瘡疾을 다스리는 효능을 가지게 한다. 烏梅<sup>4)</sup>는 酸味로 收斂하는 작용이 있어 濕痰으로 인하여 清濁이 섞여 大便이 濡泄하고 脹滿하는 증을 다스린다.

人蔘養胃湯의 구성된 方劑로 응용할 수 있는 증상을 살펴보면, 四君子湯을 기본 처방으로 하는 氣虛症의 경우 自汗<sup>2)</sup>, 久泄<sup>2)</sup>, 麻木<sup>2)</sup>에 응용을 할 수 있고 平胃散을 通治方으로 사용하는 濕의 경우 身重嗜臥<sup>2)</sup>, 頭汗<sup>2)</sup>, 脾臟病症<sup>2)</sup>, 各種泄瀉<sup>2)</sup>, 胸痞症<sup>2)</sup>에 응용하며, 二陳湯을 응용할 수 있는 痰飲(濕痰)의 경우 帶下<sup>2)</sup>, 寒瘡<sup>2)</sup>, 頭目不清利<sup>2)</sup>, 濕熱頭痛<sup>2)</sup>, 項強症<sup>2)</sup>, 咳嗽 그 중에서도 濕嗽<sup>2)</sup>에 응용할 수 있고, 回生散의 효능으로 濕痢<sup>2)</sup>, 霍亂<sup>2)</sup>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積聚의 濕鬱<sup>2)</sup>과 浮腫<sup>2)</sup>, 가벼운 脹滿<sup>2)</sup>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즉 人蔘養胃湯은 처방구성 내용으로 살펴볼 때 內外濕, 氣虛, 痰飲, 瘡瘍의 病이 진행되는 경과 중에서 생성되는 濕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볼 수 있다.

濕이란 것은 곧 水氣를 말하는 것으로, 지대가 낮은 곳이나 바람과 비가 자주 와서 산과 늪에서 蒸氣가 떠올라 사람들이 中濕에 걸리게 되는데 濕이 經에 있으면 日晡時에 發熱하고 코가 막히며, 關節에 있으면 一身이 다 疼痛하고, 臟腑에 있으면 清濁이 섞여서 大便이 濡泄하고 小便이 도리어 澀하고 배가 脹滿하며, 濕과 熱이 서로 攻搏하면 全身이 熏한 것처럼 누르게 된다<sup>2)</sup>고 하였다.

濕은 外濕과 內濕으로 구분하는데, 外濕은 東南人에게 잘 오며 늦은 여름에 비를 맞거나 濕氣가 있는 곳을 다니거나 땀에 옷이 젖으면 생기고, 腰脚脹痛이 생긴다. 반면에 內濕은 西北人에게 잘 오며 生冷物과

酒麴에 滯하여 脾에 濕이 몰려 熱이 생기므로 肚腫과 腹脹의 증상이 생긴다.<sup>2)</sup> 濕病은 傷寒과 유사하게 濕氣가 뼈마디로 돌아다니면서 온몸이 아픈 것이 주 증상으로<sup>2)</sup> 治療法은 傷寒처럼 表裏를 分辨하여 汗부로 汗을 내거나 泄瀉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sup>2)</sup>

또한 濕病 中에서 風濕에 傷하여 熱이 나는 中濕<sup>2)</sup>은 傷寒의 一種이므로, 肥濕한 者의 濕病에는 內外濕을 조절하는 代表方인 平胃散의 方劑를 포함한 人蔘養胃湯을 사용한다.

氣虛로 因하여 濕病이 유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外的으로는 肺가 主관을 하는 衛氣가 虛해져서 分肉을 따듯하게 하고 內外的 開闔작용을 맡고 있는 腠理를 좋게 하는 機能<sup>2)</sup>이 失調되어서 外邪가 침입하게 되어, 몸을 寒하게 만들어 外濕을 조성시키고, 內的으로는 寒邪에 의하여 脾胃가 冷해지기 때문에 水穀 즉 飲食을 消食 運化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濕痰이 형성된다.<sup>2)</sup>

氣虛가 주요 病因인 內傷 勞倦傷은 痞滿, 食欲不振의 主 증상에 부수적으로, 惡寒과 發熱, 身痛, 吐瀉, 腹痛, 惡心, 嘔逆, 寒熱往來와 같은 外感 傷寒陰症과 유사한 증상이 있으나 그 증상의 발현이 경미하거나 혹은 或發 或止하게 간헐적으로 나타난다.<sup>2)</sup>

氣虛者는 外邪에 感觸되기 쉬운 面白者이고, 여자의 경우 口가 작고 口가 크고 남자의 경우 口가 큰 形象이다. 氣虛症의 代表藥인 四君子湯의 方劑를 포함한 人蔘養胃湯은 陰病에 사용하는 약이므로 形象的으로 볼 때 女子 氣虛한 者에게 사용할 수 있다.

痰飲은 脾胃의 運행, 즉 升清降濁의 기능이 失調되어 體內津液이 津液化되지 못하여 체내에 阻溜되는 濕病의 一種으로 이로 인하여 榮衛運行的 不利現象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陰陽의 調和가 안 되고 內外的 均衡

이 원활하지 못하여 寒熱이 발생한다

濕痰으로 因하여 야기되는 瘧疾의 경우는 여름에 더위에 傷하여 濕熱이 속에 鬱滯되어서 밖으로 배설되지 못하고 榮衛속에 暑邪가 돌아다니다가 가을이 되어서 발생한다.<sup>2)</sup>

여름에 汗을 충분히 흘리지 못하면 더위에 傷하는 暑病이 되는데, 暑病은 傷寒이 傳變하여 夏至 이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sup>2)</sup> 『東醫寶鑑』辨證門의 百病始生條<sup>2)</sup>에 “痰이 없으면 瘧疾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여, 體內에 寒邪가 있으면 榮衛運行이 不利해지고, 內外的 조절이 안되므로 痰飲이 생성되고 痰飲은 痰瘧의 주 증상인 寒熱을 발생시킨다. 痰飲은 津液의 病理的 產物로, 津液이 運행이 잘 되지 않아서 精氣神血의 不調和가 이루어질 때 생긴다. 汗을 잘 흘리지 않고 더위에 잘 傷하는 사람은 남녀로 볼 때 女자에 해당하므로 人蔘養胃湯은 女자에게 多用할 수 있다.

瘧疾의 증상은 먼저 暑濕이 일어나고 汗이 나고 喘고 떨리면서 背가 떨리고 腰脊이 떨리고 背와 脊이 다 아프며 喘단 것이 멎으면 內外가 다 열이 나면서 寒熱이 깨질 듯이 아프며 渴症이 나서 찬 것만 먹으려고 한다.<sup>2)</sup> 汗을 하는 것과 腰脊의 疼痛은 腎臟病證<sup>2)</sup>으로 腎臟이 크거나 작은 사람에게 痰瘧이 잘 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以上을 要約하여 볼 때, 『東醫寶鑑』辨證門<sup>2)</sup>에 “氣虛하면 寒이 생성되고, 寒은 濕을 생성시키고 濕은 痰을 형성한다”라고言及하였듯이 外的으로 衛氣가 虛해져서 몸이 寒해지고, 內的으로는 脾胃의 運行이 失調되어 濕의 一種인 痰이 形成된다. 痰은 精氣神血의 不調和로 인한 津液의 病理的 產物인데, 精氣神血의 不調和는 곧 榮衛運行

의 不利를 말하며, 이는 陰陽의 調和가 안 되고 內外의 調節이 不利한 것으로 寒熱이 발생한다. 이 寒熱이 대표적인 증상인 病이 傷寒陰症, 內傷 外感 兼症, 濕霍亂, 痲瘡이고, 陰陽의 調和와 內外의 調節이 안 되는 대표적인 形象은 表裏가 未分한 女子, 氣虛者, 濕體이므로 人蔘養胃湯은 上記 形象에 적용시킬 수 있다.

## 2. 東醫寶鑑에 사용된 條文

### 寒(上)門 — 傷寒陰證<sup>2)</sup>

傷寒陰證宜陰旦湯人蔘養胃湯藿香正氣散不換金正氣散正陽散

陰證似陽面赤而脉微<入門>

### 寒(上)門 — 人蔘養胃湯<sup>2)</sup>

治傷寒陰證及外傷風寒內傷生冷憎寒壯熱頭痛身疼蒼朮一錢半陳皮厚朴半夏製各一錢二分半茯苓藿香各一錢人蔘草果甘草灸各五分右剉作一貼入薑三片棗二枚烏梅一箇水煎服令微汗漑漑然自然解散若有餘熱以參蘇飲欸欸調之<入門>

### 寒(下)門 — 感寒及四時傷寒<sup>2)</sup>

大抵感冒古人不致輕發汗者正由麻黃能開腠理用或不得其宜則導泄眞氣因而致虛變生他證此藥乃平和之劑(人蔘養胃湯也)止能溫中解表而已不致妄擾也<局方>

### 內傷門 — 辨內外傷證<sup>2)</sup>

或外感挾內傷內傷挾外感或食積類傷寒當明辨治之

若顯內證多者則是內傷重而外感輕當以補養爲先宜陶氏補中益氣湯十味和解散加味益氣湯(三方並見寒門)

若顯外證多者則是外感重而內傷輕宜以發散

爲急宜九味羌活湯人蔘養胃湯參蘇飲

(三方並見寒門)

食積類傷寒宜用陶氏平胃散<入門>

### 痲瘡門 — 寒瘡<sup>2)</sup>

自感寒而得寒多熱少宜人蔘養胃湯(方見寒門)交解飲果附湯草果飲柴胡桂薑湯○一名牝瘡<入門>

### 痲瘡門 — 露薑養胃湯<sup>2)</sup>

治久瘡三五日一發者先以生薑四兩搗取自然汁露一宿次早將人蔘養胃湯(方見寒門)一貼入棗二枚一同煎去滓和薑汁空心溫服<醫鑑>

### 痲瘡門 — 寒熱似瘡<sup>2)</sup>

感冒之人忽覺毛寒股慄百骸鼓慄嘔不能食未幾轉而發熱皆似瘡證不必脉弦但隨證施治熱多小柴胡湯寒多人蔘養胃湯和解之內傷虛者補中益氣湯(方見內傷)加山楂麥芽白豆蔻扶脾自止矣<入門>

### 痲瘡門 — 加減清脾湯<sup>2)</sup>

治諸瘡卽小柴胡湯與人蔘養胃湯合和也寒多熱少多用養胃湯熱多寒少用小柴胡湯(二方並見寒門)寒熱勻則平用每貼入薑五棗二桃柳枝各三寸水煎空心服<得效>

## 3. 人蔘養胃湯이 적용되는 形象

人蔘養胃湯은 精氣神血에서는 精科, 血科, 走鳥魚甲에서는 腎臟을 근본으로 하는 魚類, 面白者, 肥人 濕體, 痰飲의 形症을 가지고 있는 자, 六經形으로는 太陰形에 사용할 수 있다. 耳目口鼻에 대입을 하면 傷寒陰症 즉 陰病에 사용하므로 입이 큰 사람 또 음식을 잘 먹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다. 男女로 보면, 表裏가 未分한 形象이면서

또 陰血의 結集體로 항상 濕氣를 가까이 하는<sup>2)</sup> 女子에게 사용 빈도가 높다.

人蔘養胃湯은 寒濕을 치료하는 처방이고 寒濕은 芝山圖表의 階位上 下部에 해당하므로 脈은 肝—大腸 以下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濕을 동반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浮澤하고, 身痛과 몸이 무겁고 나른한 食困症이 있으며, 이 증상은 주로 봄 가을에 심하다.

#### 4. 臨床活用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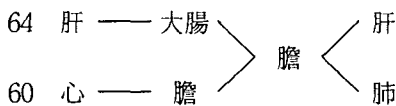
##### 1) 人蔘養胃湯의 경우

원○○(女子 43세)

【形色】 精科, 面浮澤, 口 發달,

肌肉形(東南人)

【脈】



【症】

- ① 손발이 붓고 저린 증상이 있어서 2001년 5월 11일 來院
- ② 감기몸살기운이 항상 있다.
- ③ 무릎이 항상 쭈신다.
- ④ 직업이 목욕탕 피부관리사인데, 식사가 불규칙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 ⑤ 자주 나른하고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
- ⑥ 최근 3개월 사이에 체중이 7Kg 증가

【治療 및 經過】

人蔘養胃湯<sup>2)</sup> 20貼 투여

2001년 5월 20일 再診

脈은 63/65

손발과 얼굴이 붓는 정도가 덜하다고 함

上記 處方을 20貼 투여

2001년 6월 6일 來院

脈은 66/66

감기 기운과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없어짐, 체중이 3Kg 감소

上記 處方을 20貼 투여

【考察】

『東醫寶鑑』濕門<sup>2)</sup>에 “東南地方은 땅이 낮아서 陰雨와 霧露가 많으므로 濕이 밖으로부터 들어가니 아래로부터 일어나서 다리가 무거워지고 脚氣의 疾患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上記 환자는 形象의으로 東南人에 해당하고, 인공적으로 조성된 陰雨와 霧露에 의한, 濕에 잘 感觸되기 쉬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 患者의 얼굴이 浮澤한 것과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무거우며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면서 체중이 증가한 것은 濕病 중에서도 中濕<sup>2)</sup>에 해당므로, ‘治中濕, 滿身重者’하는 除濕湯<sup>2)</sup>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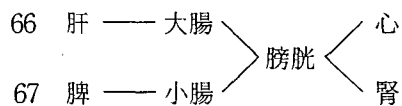
하지만 上記 患者는 식사가 불규칙하며 입이 큰 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입이 크다는 것은 음식을 잘 먹는 반면에 음식에 잘 傷하는 內傷 陰病이 걸리기 쉬운 形象이므로, 除濕湯의 처방 내용을 포함하면서, 內傷에 감기 몸살의 外感을 兼하는 症에 치료할 수 있는 人蔘養胃湯을 투여했다.

##### 2) 人蔘養胃湯 外感方의 경우

안○○(女子, 53세)

【形色】 精科, 頭大, 面黃, 手掌黃, 얼굴을 잘 찡그린다.

【脈】



**【症】**

- ① 감기가 1개월 동안 지속되어서 2000년 5월 18일 來院
- ② '89년에 자궁근종 수술, 95년에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손상
- ③ 작년에 폐결핵으로 양방병원에서 3개월간 통원 치료
- ④ 올해 3월에 중국에 1개월 간 체류 후 감기가 시작
- ⑤ 머리가 무겁고 코가 막히고 손발이 무겁다.
- ⑥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고 식사가 불규칙하며, 자주 속이 쓰리다고 한다.
- ⑦ 가슴이 답답하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아침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다.
- ⑧ 1주일 전부터 치과치료를 시작하면서 耳下腺부위가 부어있다.

**【治療 및 經過】**

人蔘養胃湯<sup>2)</sup> 加 葛根·香附子 1錢, 蘇葉 7分을 20貼 투여  
 2000년 5월 29일 來院  
 脈 73/70  
 머리와 손발이 무거운 증상은 가벼워졌으나 코 막히는 증상은 여전한  
 평소에 帶下가 없었는데 帶下가 생김,  
 耳下腺부위가 더욱 붓고 가렵기도 함  
 上記 處方을 20貼 투여  
 2000년 6월 26일 來院  
 脈 64/67  
 감기 증상 즉 頭痛과 鼻塞症은 완전 소실되고 耳下腺 부위도 붓기가 없음  
 속이 더부룩한 것은 없지만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잘 어지럽다고 하여 규칙적인 식사와 과로를 피할 것을 권유  
 上記 處方을 20貼 투여  
**【考察】**

上記 患者는 머리가 크고 얼굴을 잘 찡그리는 것이 흠이다. 머리가 크면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氣가 鬱滯가 된다<sup>2)</sup>. 또한 이 환자는 많은 나이에 불구하고 공부를 지나치게 하여 스트레스가 많고 식사도 불규칙하게 한다.

『東醫寶鑑』積聚門<sup>2)</sup>에 “鬱이란 것은 病이 맺혀서 흠어지지 않는 症으로 마땅히 올라야 할 것이 오르지 못하고 내려야 할 것이 내리지 못하고 變化해야 할 것이 變化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傳化하는 것이 正常을 잃어서 六鬱의 病이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또한 鬱症은 上記 患者의 증상처럼 얼굴을 잘 찡그리고, 속이 잘 쓰리며, 芝山圖表의 階位上 脈이 중간에 걸리게 된다.

스트레스는 七情에 傷한 鬱症으로, 病의 原因으로 볼 때 七情에 傷한 것은 陰病에 해당하고, 이 患者의 주소증인 감기증상은 形象과 色, 脈, 症狀을 대입하여 볼 때 傷寒陰症에 해당하여 氣鬱과 外感을 풀어 줄 수 있는 藥物을 加味한 上記處方을 투여했다.

3) 人蔘養胃湯 內傷方的 경우

박○○(女子 6세)

**【形色】** 精料, 面黃, 口大, 입술이 잘 마른다

**【脈】** 內傷脈(氣口 > 人迎)

**【症】**

- ① 음식을 잘 안 먹고 키가 작다고 2001년 2월 18일 來院
- ②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남
- ③ 밤에 잘 때 목 주위와 머리부위에 땀을 많이 흘림
- ④ 잘 때 이불을 안 덮고 자고 시원한 곳을 좋아하고, 찬 음료수와 빙과류를 즐겨 먹는다.
- ⑤ 작년까지는 음식을 잘 먹었는데 서서

히 식사량이 줄어들음

- ⑥ 음식을 먹고 나서 잘 드러누우려고 한다.
- ⑦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감기가 걸리면 밤과 새벽에 기침을 많이 하고 심하면 토하기도 한다.
- ⑧ 최근에泄瀉를 자주 한다.

【治療 및 經過】

人蔘養胃湯<sup>2)</sup> 加 山查 2錢, 神麩·檳榔 1錢, 枳實 7分을 15貼 투여

2001년 3월 4일 來院

입 냄새가 없어지고 설사가 멎음

땀을 흘리고 이불을 안 덮는 것은 별로 변화가 없음

藥을 복용하고 입맛이 좋아져서 음식을 많이 먹으려 하고 눕지를 않고 심하게 뛰어난다고 하여 ‘食復과 勞復<sup>2)</sup>에 대한 설명을 해줌

上記 處方을 20貼 투여

2002년 5월 2일 來院

키가 6cm이상 커지고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上記 處方을 20貼 투여

【考察】

『東醫寶鑑』小兒門<sup>2)</sup>에 “小兒에게 젖을 먹여야 될 때 밥을 먹이면 창자가 能히 消化시키지 못하므로 食積을 이루는 것인데, 배가 脹滿하고 여위어서 弱해지고 痢色이 正常을 잃고, 얼굴이 누르고 부으며, 잠을 많이 자며, 물을 마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或은 喘息하며 咳嗽하여 潮熱과 비슷하다”라고 하여 上記 患者의 증상과 흡사하다.

음식을 먹고 잘 드러눕는 것은 食積으로 인하여 脾胃에 濕이 차있기 때문이고,<sup>2)</sup> 이 불을 덮지 않는 것은 食積으로 인한 肚腹熱이 그 原因이다.

이 患者가 머리와 목 주위에 땀을 흘리는

것을 살펴보면, 머리와 목은 陽明經이 주관하여, 肚腹熱이 있고 胃가 實하면 땀을 흘리게 되는데<sup>2)</sup> 陰血의 不足으로 오는 盜汗<sup>2)</sup>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上記 증상으로 종합을 하여 볼 때, 이 患者는 內傷인 飲食傷에 外感을 兼하였으므로 消積시키고 和脾胃하는 藥物을 加味한 上記 處方을 투여했다.

김○○(女子 3세)

【形色】 精科 面赤白, 濕體, 윗입술이 들림.

【柏】 內傷脈(氣口 > 人迎)

【症】

- ①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2002년 9월 19일 來院
- ② 生後 3개월 이후부터 皮膚 發疹
- ③ 코가 잘 막히고 감기를 자주 한다. 심하면 귀에서 진물이 나기도 한다.
- ④ 皮膚의 搔痒症은 바람 부는 날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 심하다.
- ⑤ 계절적으로는 가을에 심하다.
- ⑥ 평소에 식사습관이 급하고 이유식을 생후 3개월에 시작
- ⑦ 大便이 묽다.

【治療 및 經過】

人蔘養胃湯<sup>2)</sup> 加 山查 2錢, 神麩·檳榔 1錢, 枳實 7分을 10貼 투여

9월 28일 來院

투약 전 보다 發疹이 더욱 심하다

상처가 나도록 심하게 긁는데 특히 저녁에 심하다.

大便이 묽은 것이 好全됨

上記 處方을 10貼 투여

10월 12일 來院

가래 기침이 심하고 가려움증이 더욱 심하다.



피부가 아주 거칠어짐  
 上記 處方을 10貼 투여  
 10월 26일 來院  
 얼굴의 붉은 색이 많이 없어짐  
 피부에 딱지가 앓기 시작하고 搔痒症이  
 줄어듬  
 감기 기침과 코막힘은 계속, 중이염 증상은  
 없어짐  
 上記 處方을 10貼 투여  
 11월 2일 來院  
 얼굴이 본래 색인 흰색으로 돌아옴  
 皮膚發疹이 없어지고, 감기 증상이 없어  
 짐  
 上記 處方을 10貼 투여

【考察】

皮膚는 肺에 속하고 腠理라고 하며 또한 玄府라고 한다<sup>2)</sup>. 코는 玄府의 門戶에 해당하여 天氣로서 身體를 滋養하고<sup>2)</sup> 그 天氣는 心肺에 간직된다. 그러나 心肺에 病이 들면 鼻息이 不利해져<sup>2)</sup> 코가 잘 막히는 증상이 생긴다.

한편, 아이가 태어나서 32일 간격으로 熱이 나는 것을 變蒸이라고 하는데, 『東醫寶鑑』 小兒門에<sup>2)</sup> “變蒸이란 陰陽과 水火가 血氣를 熏蒸해서 形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新生兒에 있어서 形態만 있는 五臟六腑를 順次的으로 變化시켜 正常的인 機能을 갖추게 한다. 이 때 마지막으로 10개월에 변화하는 것이 胃腑이다.

上記환자는 생후 3개월부터 모유가 아닌 이유식을 시행하여 飲食傷인 積癖이 형성되었다. 積癖은 ‘食氣가 心을 滋養하는 것과 마시는 것이 肺를 滋養하는 것<sup>2)</sup>을 沮害하여 心肺에 病이 들게 하므로 鼻息이 不利하여 鼻塞症이 온다.

한편 飲食傷은 처음에는 속이 寒하나 나중에 속이 熱이 생겨, 胃熱이 手少陰의

火를 도와서 手太陰肺에 들어가게 되어 紅點이 皮毛의 사이에 나타나는 斑疹의 증상이 생긴다<sup>2)</sup>.

이 患者의 증상이 흐린 날과 가을에 심한 이유는 날씨가 흐리면 濕이 많고 가을을 주관하는 肺가 역시 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患者는 火性을 동반한 濕體이므로 “그 形에 그 病이 온다”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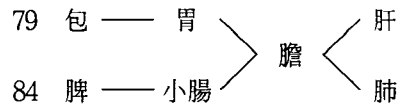
飲食傷으로 因하여 寒濕이 형성되었으므로 上記 處方을 투여했다.

4) 人蔘養胃湯 暑病方의 경우

성○○(女子 33세)

【形色】 血科, 濕體, 面浮澤, 눈과 입이 발달, 魚際가 푸르다

【脈】



【症】

- ①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어서 2001년 6월 19일 來院
- ②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피곤하다
- ③ 손발이 시려서 깊은 잠을 잘 못잔다
- ④ 잘 어지럽고 심하면 머리가 아프다
- ⑤ 더위를 많이 타는데 5일전에 에어컨을 켜 차로 장거리 여행을 하고 냉면을 먹고 지금까지 계속 배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우며 헛구역질이 난다.
- ⑥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잘 마르고 쓰다
- ⑦ 大便이 묽다

【治療 및 經過】

人蔘養胃湯<sup>2)</sup> 加 香薷 3錢 白扁豆 1錢을 20貼 투여

2001년 6월 29일 來院

脈은 84/72

몸이 더욱 무겁고 관절이 아프다

얼굴이 붉는 증상은 없어짐

上記 處方을 20貼 투여

2001년 7월 10일 來院

脈은 63/66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픈 증상은 소실되고 魚際의 색도 푸른색이 없어지고 붉은 색이 나타남

上記 處方을 20貼 투여

【考察】

『東醫寶鑑』 暑門<sup>2)</sup>에 “傷寒이 夏至이후에 傳變된 것을 暑病이라”하고 그 증상은 “身熱, 自汗하며, 입이 마르고, 얼굴에 때가 끼고, 背寒하고 倦怠하며 少氣하고 或은 頭痛하고 或은 四肢厥冷한 것”이라고 하였다.

上記 患者는 濕熱이 잘 조성되는 체질인데 汗을 흘려야 하는 여름에 찬 에어컨 바람을 쐬어서 冷氣에 感觸되고 生冷物을 먹어서 暑毒이 腸胃에 들어가서 腹痛, 惡心, 嘔吐, 泄瀉하는 증상<sup>2)</sup>이 생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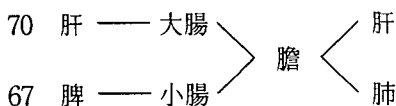
冷寒에 四肢가 厥冷하고 吐하는 傷寒 陰症과 生冷에 內傷하여 憎寒하고 壯熱하며 頭痛하고 身痛한 症을 다스리는 人蔘養胃湯에, 暑病의 代表方인 香薷散<sup>2)</sup>에 主 藥物인 香薷와 白扁豆를 加味한 上記 處方을 사용했다.

5) 人蔘養胃湯 寒熱方の 경우

조○○(女子 53세)

【形色】 魚類, 血科, 面黃, 近視, 膀胱體, 太陰形

【脈】



【症】

① 좌측 손이 붓고 감각이 무디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2000년 11월 18일 來院

② 항상 감기가운이 있고 진땀이 자주 난다.

③ 갱년기 증상처럼 열이 올랐다가 내리면서 寒氣를 느끼는데 그 증상이 불규칙하다.

④ 항상 마음이 불안 초조하고 가끔씩 심장이 멎는 느낌이 든다

⑤ 평소에 不整脈이 있음

⑥ 속이 잘 쓰리다

【治療 및 經過】

人蔘養胃湯<sup>2)</sup> 加 柴胡 2錢, 黃芩·檳榔 1錢을 20貼 투여

2000년 12월 19일 來院

脈은 70/69

땀이 조금씩 줄어들고 손이 붓는 증상이 사라짐

감각이 무딘 것은 아직 남아 있음

上記 處方을 20貼 투여

2000년 12월 29일 來院

脈은 70/70

감기증상과 寒熱 증상은 없어짐

마음이 초조 불안하고 속이 쓰린 느낌은 남아 있음

究原心腎丸을 1개월분 투여

【考察】

『東醫寶鑑』 胸門<sup>2)</sup>에 “痞라는 것은 心下가 가득하고 痛하지 않은 症이며 太陰의 濕土가 壅塞을 主하여, 卽 土가 心下에 와서 痞를 만든 症이다”라고 하여 太陰形인 上記 患者는 胸痞症이 잘 올 수 있는 形象이고, 좌측 손은 心臟의 짝이므로 心臟에 의한 증상으로 잘 붓는 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不收不舒한 太陰濕土의 壅塞으로 보고 陰

伏·陽蓄의 痞滿을 다스리고 脾胃를 調養하며 陰陽을 升降하여 天地의 交泰를 이루는 香砂養胃湯<sup>2)</sup>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항상 감기기운이 있고 불규칙한 寒熱往來의 증상이 있어서 瘧疾과 유사<sup>2)</sup>하다고 추정되었으며, 寒氣가 榮血을 傷하여, 血을 主管하고 根本이 되는 心에 邪氣가 들어가서 心下痞가 된 것으로<sup>2)</sup> 보고 人蔘養胃湯에 寒熱을 調節하는 藥物인 柴胡, 黃芩 등을 加味하여서 우선 투여하고, 感氣와 寒熱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 虛勞의 心虛症으로 보고 膀胱體의 水升火降이 失調된 경우에 사용하는 究原心腎丸<sup>2)</sup>을 투여했다.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 Ⅲ. 總括 및 要約

人蔘養胃湯을 概括적으로 살펴보고 形象醫學적으로 접근하여 臨床을 한 結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1. 人蔘養胃湯은 藪亂, 氣虛, 痰飲, 治濕의 各各 基本 方劑인 回生散, 四君子湯, 二陳湯, 平胃散 등으로 構成되어 있어 健脾, 燥濕, 溫中止嘔, 理氣, 祛痰하는 效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人蔘養胃湯은 內傷에 外感을 兼한 病症으로는 寒瘧, 藪亂, 積聚, 浮腫, 脹滿에 사용되고, 外感으로 傷寒陰症, 內傷으로는 痞滿, 食欲不振, 腹痛 泄瀉에 사용되고 있다.
3. 人蔘養胃湯을 사용할 수 있는 形象의 特徵으로는 精科, 血科, 魚類, 六經形으로는 太陰形, 六氣의으로는 肥白한 濕體에게, 耳目口鼻에서는 입이 큰 사람에게 사용되며, 男子보다는 女子에게 사용빈도가

## 參 考 文 獻

1. 陳念祖, 和劑局方, 臺北, 1975, 施方出版社, 第 2卷 pp. 7~8
2. 許 浚, 對譚東醫寶鑑, 서울, 1999, 法人文化社, pp. 1017, 1016, 1140, 1374, 889, 260, 445, 734, 241, 264, 317, 433, 573, 371, 1365, 494, 497, 653, 1235, 454, 1202, 1279, 1304~1305, 1318, 1085, 1086, 1087, 157, 431, 1141, 1359, 1075, 892, 1359~1360, 329, 893, 1064~1065, 1643, 1092 1088. 184, 1177~1178, 1048~1049, 1705, 241, 264, 263, 727, 590, 1662, 1126~1127, 729, 1075~1076, 1080, 1083, 673, 675, 1374, 1180,
3. 尹用甲, 增補改正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서울, 2002, 醫聖堂, p. 111, 381, 456, 330
4. 辛民教, 原色臨床本草學, 서울, 1988, 永林出版社, p. 166, 174, 175~177, 250~252, 254~255, 380, 393~394, 413, 414~415, 417~418, 556, 581
5. 羅天益, 衛生寶鑑, 香港, 1981, 商務印書館, p. 400
6.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1982, 大星文化社, pp. 117, 179, 258, 285, 288, 297~299, 345, 354, 533
7. 樓全善, 醫學綱目, 臺南, 1973, 北一出版社, 第 39卷 p. 22
8. 李 梴, 醫學入門, 서울, 1983, 翰成社, pp. 302, 375, 439, 451~456, 497~498
9.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1972, 杏林出版社, 卷上 p. 130
10. 王肯堂, 六科準繩, 서울, 1982, 翰成社, p. 96
11.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1975, 杏林出版社, p. 276, 289, 300, 319, 864, 899
12. 黃度淵, 醫宗損益, 서울, 1976, 醫藥社 p. 371
13. 黃度淵, 方藥合編, 서울, 1977, 醫藥社 pp. 85~86